

소상인 절반 이상 “경기 나쁘고 미래 불안해”

중기중앙회, 1500명 ‘일과 삶’ 만족도 조사

수수료 세부담 경감·긴급 자금 지원 기대

소상인의 ‘일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전국 소상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일(직장)과 생활에 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절반 이상(52.3%)이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고 10명 중 4명 이상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9.9%에 그쳤다.

또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고 답한 이 중 40.9%만이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연금과 같은 재정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소득으로 가족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0.6%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으며 ‘그렇다’는 응답자는 26.7%에 그쳤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소상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에 대해 65.7%가 공감했다. 이는 소상인들이 창조경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 등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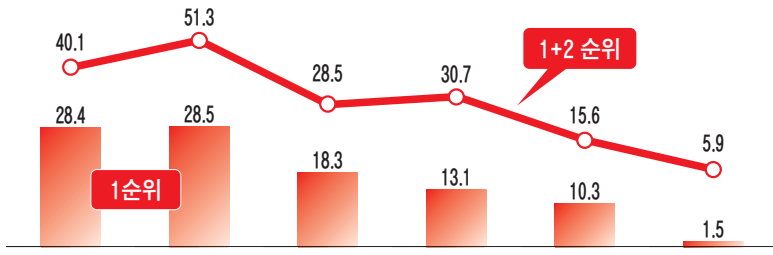
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소상인들이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9.5%가 ‘소상인도 경영자로서 재능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뉴스, 시사, 소비자정보와 관련정보에 관심이 많다(66.3%)거나 사회적 기여를 해야한다(61.9%)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전망이 있는 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응답도 59.8%를 차지했다.

소상인의 33.9%는 가족기업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1일 평균 근무 시간은 10.6시간, 월평균 급여는 268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가족기업의

■ 소상인이 느끼는 애로사항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단위:%)



장점으로 빠른 의사결정(72.3%), 원활한 의사소통(71.7%)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들은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 및 세 부담(28.5%) 경감, 긴급운영자금 지원(28.4%),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18.3%) 등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매출액은 2142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 47.1% ▲3000만원 이하 24.7% ▲3000만원 이상 16.3% 등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光銀 중기 대출 3년간 꾸준히 증가

올 10.3% 늘어 7000억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의 지역 중소기업 대출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해 올 10월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이 전년말 대비 7000여억원(10.3%)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1년말 8조3300억원, 2012년 8조9000여억원으로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광주은행은 지난 1월부터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남북원대출’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기존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설계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금융비

용 절감효과 및 투자효율성이 증가토록 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 상품으로 7800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전동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중인 지역 상인들을 위한 상품 ‘아따매! 장터사랑 대출’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이 대출은 전동시장 및 상점가에서 3년 이상 영업중인 개인사업자 및 지역보증재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주은행 기업영업전략부 염규봉 부장은 “지역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소재 중소기업과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NH농협은행, 사랑의 김장 담그기 NH농협은행 광주본부 여직원 모임 가인회(회장 나미레)와 광주노조 사랑의 봉사단(본부장 박삼지)은 지난 23일 북구 양산동 소재 지적장애인 재활서비스 복지기관인 ‘포인빌’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25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열린 ‘기아차 광주공장 공생협력지원 및 안전경영방침 선언식’에 참여한 기아차 광주공장 임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안전경영방침 선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동반성장 추구, 안전경영 하겠다”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사와 ‘공생’ 다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협력사와 ‘공생과 안전경영’을 다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과 35개 협력사는 25일 기아차 광주공장 스포츠센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아차 광주공장과 협력사는 동반성장을 추구하면서 산업재해 감소 등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구현을 위한 안전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안전경영방침을 담은 액자를 협력사들에 각각 전달했다. 또 이번 선언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안전보건경영방침 우수 이행 협력사에 대해 포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2차 협력업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행 행사는 지난 21일 광주고용노동청에서 지역 주요 사업장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CEO 안전경영방침 릴레이 선포식’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미 지난 2011년 협력사들과 ‘인심일터만들기’ 협약을 맺고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활동을 하는 등 동반성장과 안전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최근 3년간(2011~2012년) 산업재해율이 사내 협력사 0.74%→0.15%, 사외 협력사 0.68%→0.27% 등으로 개선된 것도 공생협력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에 힘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015.98 (+9.75)	▲ 코스닥지수 507.76 (+3.70)	▲ 금리(국고채 3년) 2.97%(+0.02)	▲ 원·달러 환율 1061.90원 (+1.70)
----------------------------	---------------------------	------------------------------	-------------------------------



대학생 등 27명에 장학금 4400만원

보해장학회

보해(회장 임효섭)는 지역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보해장학회(이사장 전성환)가 호남지역 대학생들에게 2013년도 장학금 44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

보해장학회는 지난 22일 보해목포 분사 회의실에서 보해 관계자 및 대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지역 대학생 17명에게 각 200만원씩, 고등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씩, 2013년도 보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보해장학회는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 하나 가

정형권이 어려운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호남지역의 대학 총장 및 각 학교장들에게 추천을 받아 장학금 수여자를 선정했다.

보해는 보해장학회를 통해 기업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업 정신에 따라 32년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한편, 이날 장학금 전달로 보해장학회는 지난 1981년 장학재단 설립 후 198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32년 동안 총 3,500여명의 지역 학생들에게 33억 43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늘 ‘광주전남 중소기업융합교류 플라자’ 열려

“2013 광주전남 중소기업 융합교류 플라자”가 2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리초컨벤션 웨딩홀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간 교류로써 새로운 수요 창출, 경영·기술 정보교류, 시장개척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등을 위해 마련됐다고 25일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가 밝혔다.

이 같은 융합교류활동은 광주전남에서 지금까지 400여개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20여 차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 중소기업 우수 융합사례 발표,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남부대-전남과대학 공동발전 협약 체결, 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간 전동시장 활성화와 협약 체결 등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 17개 회원사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중소기업청장상, 광주광역시장상, 전라남도지사상,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 등 각종 상 수상식도 병행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최상준 남화토건 부회장, 광주경총 차기 회장 내정

최상준(76)남화토건 대표이사 부회장이 (새)광주경영자총협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다. 25일 광주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최 대표를 14대 회장으로 내정하고 내년 2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예정이다. 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부터 3년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정회원 210명과 특별회원 등 총 12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지역 최대규모의 경영자 단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해남팡굴호텔
일출과 일몰, 그리고 다도해가 어우러지는 곳- 바다 위의 휴식처 해남팡굴호텔

하늘과 맞닿은 듯한 위치에서 지리 접은 해남팡굴호텔은 우형리 공룡박물관, 이순신 평양대첩, 송호해수욕장, 망골관광단지, 보길도, 달마산, 두륜산도립공원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휴식공간입니다.

그 곳에 가면 영산재·오동재가 있다.

한옥호텔 영산재와 오동재의 대청마루에 앉아 차시이로 열린 하늘을 바라보자면 차마 끝에 매달린 내 시를 한 조각 바람 되어 멀리 날린다. 긴 세월 영산재와 오동재의 아름다움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서 그 아름다움은 유달신과 영위신에서 흘러져 나오는 맑은 정기는 애마른 나의 영혼을 적시어 새 희망을 잉태시킨다.

해남팡굴호텔 536-924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227-1
Tel.061-530-8000 Fax.061-530-8003

영산재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신희읍 나불리 292 ■ 예약 및 전화문의: 061460-0300
규모: 객실수 21실, 한식당, 연회장, 전통문화체험관

오동재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394-5 ■ 예약 및 전화문의: 061660-1000
규모: 객실수 32실, 한식당, 연회장, 전통문화체험관, 백팩지